

부동산·금융위기·지방정부 부채 ‘트리플 악재’ 경고음 커진 中경제

무디스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지방정부 부채, ‘금융 시한폭탄’ 수출 부진·경기 침체도 원인 국제사회 ‘금융 좌경화’ 주목

중국 경제를 겨는 경고음이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금융 시장 위기 우려와 함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해온 가운데 천문학적 규모의 지방부채 문제까지 수면으로 불거지면서다.

이에 무디스는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해 하향 조정을 사실상 예고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는 중국 공산당의 장악으로 표출된 금융권의 ‘좌경화’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무디스의 中 신용등급 부정적 전망 속 中 ‘금융 사회주의화’ 가능성에 촉각=무디스는 5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다. 부정적 전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대개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전례를 볼 때 사실상 하향 조정을 예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무디스는 1989년 텐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27년 만인 2016년 중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낮춘 바 있다.

물론 중국은 발끈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회복 속에서도 중국의 거시경제는 꾸준히 회복하고 질적으로 발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면서 반등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방 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금융 분야의 위기 역시 통제할 수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다시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자신한다.

그러나 서방의 인식은 이와 다르다.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미국에 맞선 중국이 각종 경제·안보 이슈로 서방과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 부동산·금융 시장 위기 장기화와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해 성장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전체가 외부에 중국 투자를 독려하고 있으나 성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채무불이행 위기 직면한 中 지방부채…WSJ “금융 시한폭탄”=최근 국제사회는 무엇보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인용해 그 규모가 약 7조~11조달러(약 9100조~1경4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그 가운데 4000억 달러(약 524조원)에서 8천억 달러(약 1050조원) 이상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국 내 31개 상·시·자치구의 무분별하고 경쟁적인 인프라 투자가 주요 원인인 지방정부 부채는 코로나 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규모가 더 커졌다. 방역 비용 충당을 위한 재정 확대, 그리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지방 토지 양도 수입 감소 때문이다.

중국 당국 역시 지방부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비해왔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올들어 지방정부 부채를 면밀히 조사한 중국 정부는 그 규모가 2013년 10조위안, 2019년 20조위안, 2021년 30조위안을 넘은 데 이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40조1011억위안(약 7288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가 정확한지를 놓고서는 논란이 있다.

WSJ은 중국의 이런 지방부채를 금융 시한폭탄 수준이라고 봤다.

◇부동산·금융 위기에 수출 부진…中 GDP 성장률은 하락 전망=사실 중국 경제는 최근 1~2년 새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위기로 망들려왔다. 부동산 개발 분야의 선두권인 헝타(恒大·에버그란데)에 이은 비구이위안(碧桂园·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기에 이어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위기가 현실화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가격은 폭락했고 중국 당국이 여러 부양책을 폈지만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았으며, 결국 중국 경제는 올해 내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하락)을 걱정해야 했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이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축인 수출 감소도 두드러졌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에 따르면 10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2748억3천만 달러(약 359조원)로 전년 동기 대비 6.4% 줄었다. 8월(-8.8%)과 9월(-6.2%)에 이어 석달째 한 자릿수 감소세를 유지했다.

올해 1~10월을 기준으로 보면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0.4% 증가했으나, 작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을 겪었던 시기였음을 고려할 때 올해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교전으로 가자지구 내 식수 부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5일(현지시간) 남부 라파에서 어린이들이 물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가자 남부 최대도시 진입 ‘죽음의 시가전’

“지상전 이후 가장 강렬한 하루”

휴전 종료 이후 전투를 재개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에서도 본격적인 대규모 지상전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제2의 도시이자 남부 최대 도시인 칸유니스에 전차를 앞세운 이스라엘군이 진입해 이번 전쟁 들어 가장 치열한 시가전을 벌이는 등 전쟁이 북부에 이어 남부에서 2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는 7일 전쟁 2개월을 앞두고 민간인 사망자가 1만6000 명을 넘기면서 휴전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재점령까지 시사하는 등 전쟁의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스라엘군은 공중 지원을 받은 지상군이 칸유니스를 포위하고 일부는 중심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남부군 사령관 야론 핀켈만 소장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저녁부터 칸유니스

의 심장부에도 진입한다”며 “오늘은 사실한 테러범 수와 교전 횟수, 지상 및 공중 무기 사용 횟수 등 측면에서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 가장 격렬한 하루”라고 밝혔다.

헤르시 할레지 참모총장은 “거의 모든 건물과 집에서 무기를 발견하고 있다. 여러 집에서 테러리스트를 발견해 교전을 벌이고 있다”며 “그들의 수법이 집에 무기를 비치한 뒤에 민간인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가 도착해 전투를 벌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 에일론 레비는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단계는 군사적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부의 분리 장벽을 넘어온 이스라엘군 전차가 칸유니스 동쪽 외곽에 있는 바니 수하일라에 진입했고 일부 전차는 시내로 더 깊이 들어가 하마스 시티 주거단지 부근에 자리를 잡았다.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군 10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바이든 “트럼프 안 나왔다면 나도 재선 단념했을지 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선 도전이 없었다면 자신도 재선 도전을 접었을 수 있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만약 트럼프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다면 내가 출마했을 것으로 확신을 못 하겠다”면서 “우리는 그가 이기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16년 공화당 후보로서 대선에서 승리해 2017~2021년 집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에 패한 뒤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했고, 2024년 대선에 재도전하겠다고 작년 11월 선언했다.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며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누차 제기된 고령(81세)에 따른 건강과 인지력 논란 속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지 5개월 후인 지난 4월 역시 재선 도전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베조스와 저커버그, 머스크의 전쟁’ 조각작품. 칠레 조각가 세바스티안 에라수리스가 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비치 의 파에나호텔 로비에서 자신이 조각한 ‘기업가들의 전쟁’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했다. 이 작품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왼쪽)와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가운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미국을 대표하는 신진 기업가 3인의 쟁쟁함을 형상화했다. /연합뉴스

왜 한국 학생들 성적만 썩... 외신도 놀랐다

OECD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코로나 대응 차이가 격차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 조사에서 선진국들의 성취도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락한 반면, 한국과 일본·싱가포르·대만 등 극소수 국가들은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자 세계적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등 외신들은 선진국 전반의 학업성취도가 유례 없이 떨어진 가운데 한국 등 몇몇 국가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 차이 등으로 인해 나머지 선진국과 격차를 벌였다고 진단했다.

점수가 가장 많이 떨어진 수학의 경우 오랫동안 높은 학업성취도로 주목받아온 핀란드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등의 점수가 20점 이상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수학과 읽기는 1점씩, 과학은 9점 상승했으며, 대만, 일본, 싱가포르도 오히려 수학 등의 점수가 높아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 교육당국은 이들 소수 선진국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는 우선 팬데믹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꼽혔다. 학교 폐쇄에 따른 수업 차질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대만, 한국 등 국가들이 대체로 수학 등 성적이 좋았다는 것이다. 또한 원격 수업의 품질 차이도 학업성취도 격차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